

내가 부처요 허공이 나의 몸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동진선사 '白雲自覺'

선사의 법명은 경보(慶甫), 법자는 광중(光宗), 법호는 동진(洞眞), 속성은 김씨(金氏)이다. 전남 영암군 구림(鳩林) 사람이다. 부친의 이름은 익량(益良), 벼슬은 알찬(諫官) : 신라의 7등급이며 모친의 성은 박씨이다. 신라 경문왕 8년(868) 7월에 모친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흰 쥐가 푸른 유리구슬 한 개를 물고고 "이것은 매우 드물고 기이한 보물이며 불가의 최고 보배입니다. 품안에 있으면 부처님의 호법(護法)이 따를 것이고 나오면 틀림없이 광채를 발할 것입니다"고 사라졌다.

그 이듬해 4월 20일 출생한 동진선사는 유년(幼年)에 부인산사(夫仁山寺)로 가서 낙발하고 교학 공부에 정진하였다. 선산(禪山)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학에 깊이 심취하여 있던 어느 날 공에 황금빛의 부처님이 선사의 머리를 어루만지다가 가사를 건네주며 "이것으로 몸을 보호하며 다녀라. 이곳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

에는 가지미가 많이 잡히므로 그렇게 못하였대의 용 새끼인가"하고 선문(禪問)을 하였다. 선사의 선답(禪答)의 담병(談柄) : 끊어지지 않는 말의 현인기(玄言機) : 오묘한 이치의 깊은 의미가 담긴 뜻을 들은 광인 선사는 선실에 올라오도록 허락했다. 광인 선사께서 동방사람으로서 눈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라 말하고 지혜의 등불을 전해 진리의 도장(心印)을 주었다.

선사는 다시 강서(江西)의 노선 화상을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노선 화상 회상에서 수참하기를 2년 만에 가을날 쪽빛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노선화상께서 선사를 보고 물었다.

"흰 구름이 쇠사슬 되어 나그네의 길을 끊었도다(白雲鎖斷行人路)." 이에 선사께서 확활대오(廓徹大悟)하였다.

백운자각(白雲自覺·흰구름에 깨달은 마음)
自有靑山路(자유靑산로)
白雲那得留(백운나득유)

새도 머물 나무 가릴 줄 아는데 내 어찌 한곳에만 매달리랴

니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꿈을 깬 선사는 다시 놀지 않고 앉아 있다 날이 밝자 길을 떠나 백계산 도승화상을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도승 화상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지혜가 아니면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지킬 수 없고 계율이 아니면 인간의 그릇된 행동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18세에 월유산 화엄사에서 구족계를 풍수, 다시 백계산으로 돌아서 도승 화상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자 도승 화상은 "너의 그러한 뜻을 빼앗을 수 없고 행동을 막을 수 없구나. 너는 나를 모르고 동가구(東家丘) : 공자를 말함으로 여기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라며 혀를 탔다.

선사는 이때부터 수없는 제방을 주유함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보고 들었으며 배움에 있어서는 일정한 스승이 없이 정진하였다.

동진선사는 중국 무주(無州) 소산(蘇山)에 주석하고 계신 광인 선사를 찾아가 법을 구하였다. 광인 선사는 선사를 대하여 "이리 가까이 오라. 그대는 접해(接海) : 신라를 지칭하는 말. 신라 근해

나그네 가슴에 푸른 산의 길이 있거늘, 흰 구름이 어떻게 잠을 수 있으리까.

선사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시국은 불안했다. 때마침 견훤(甄萱)이 웅대한 뜻의 실현을 두고 이름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가 놓아 주는 응병술에 치중하고 있을 때에 견훤은 선사를 뒤편으로 모시고자 하였다. 견훤은 선사를 완산 주(完山州) : 지금의 전주)의 남북사로 모시고자 청했다. 선사는 "새도 머물 나무를 가릴 줄 아는데, 내 어찌 박이나 오이처럼 한곳에만 매달려 있어야 한 단 말이요"라고 대답하고 떠났다.

백계산 옥룡사로 와서 주석하였다. 선사의 자애로운 마음의 바람 만리에 이르고, 선(禪)의 달빛은 구천(九天)밖까지 비추었다. 그러나 조각달도 허공에 흐르듯, 선사의 큰 선리(禪理)는 비상(飛翔)되지 못한 채, 고려 정종 3년(948) 세수 80세 법랍 62세로 백계산 옥룡사 연화실에서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면목 없는 자가 근본이라(無面目者是本然) / 두두 물물이 이리 좃아 왔다(頭頭物物從此來) / 주월, 춘화(春華)를 그대는 아는가(秋月春花君知否) / 돌어인 잿대 부는데, 목인이 춤추더라(石女吹笛木人舞).

서울 정릉 보림사에 주석하는 목산스님이 30여년전 젊은 계승으로, 56년여의 수행력을 드러내는 살림살이다.

1922년 제주 서귀포에서 출생한 목산스님은 46년 제주도 황룡사에서 금륜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의 본격적인 참선공부는 49년 해인사에서 인곡스님을 법사로 모시면서 시작했다. 인곡스님은 목산(默山)이란 법호와 함께 계승을 내려주었는데, 이 계승이 목산스님으로 하여금 평생 소를 찾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가히 우습구나. 소를 탄 자가 소를 찾는구나(可笑尋牛者 騎牛更覓牛). 그림자 없는 나무를 꺾어와야(折來無影樹) 바닷가 가운데 물거품을 녹여 다하리라(滄海中海瀟)." 목산스님에게 인곡스님은 해인사 장경각에서 정진하던 승은 도인이었다. 평생 돈을 만지지 않은 인곡스님은 양말도 한 켤레, 깔고 덮는 이불도 한 채 뿐이었다. 심지어 책도 얻어다 볼 정도로 무소유를 생활화한 분이였다. 장삼만 남기고 입적, 그 청빈과 담박함이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분이라는게 목산스님의 회고다.

인곡스님을 모시고 해인사에서 공부할 당시 가야총림의 선방에는 효봉스님이 조실로 계셨는데, 목산스님은 47년에 처음 친견하고 문답을 주고 받았다.

목산스님 : 4대 5온이 어찌 생겼습니까?
효봉스님 : 무(無).
목산스님 : 펍!(소리지르고, 물러나오다)

목산스님은 그러나 이 문답에서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 얼마후 다시 효봉스님에게 가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때 많은 감명을 받았다.

"니가 어딜 가더라도, 마디 풀(付)도 없는 곳을 가거라."

해인사는 6·25전쟁후 불바다를 이루었다. 사찰들은 인민군과 피난민으로 법석이 었다. 이듬해에 흥년이 들어 저절로 두타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피난시절, 결망을 지고 가다가 전남 함안 송림사에서 이삼만 선생이 쓴 주련을 보고 가슴이 툭 터진 때가 있었다. 고난의 시기에 귀중한 글귀는 새로운 발심의 기회가 되었다.

학같은 나무는 적멸을 보이는데(鶴樹潛輝示寂滅) 금강사리는 광명을 놓아(金剛舍利放光明) 팔천 경문이 가슴 속에서 나오니(八千經卷胸中出) 백역의 건곤이 발아래



가까이서 뵈 큰스님

목산스님 (보림사 회주)



목산스님은 웰컴을 앞두고 백봉거사의 문집을 열어, 일어로 번역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를 전할 생각이요. 50년이 넘는 기간동안 참선만 해온 스님이지만 수행과 포교는 스님에게 돌아 아니다.

불법이 세상 건지려면 눈푸른 남자 많이 나와야

갑주어지다(百億乾坤下藏).

문을 던졌다.

"글귀 하나하나가 중생을 제도하는 갈로법문이었어요. 목타는 중생의 마음자리를 윤택케 하니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인연이 있어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발심이 되어 공부 안할 수가 있었습니까?"

인곡스님과 효봉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목산스님은 백암사에서 3안거를 보냈다. 만암스님은 '이 뿔고' 화두를 주장하셨다. 23세 때는 고봉스님이 견성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강인근의 비구니 사찰서 문답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 수좌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 목산스님이 불이법문(不二法門)에 대해 질

목산스님 : 본래 둘이 아닌데, 어찌 둘이 됩니까?
고봉스님 : 어찌 분별하느냐?
목산스님 : 스승과 제자가 들인데, 어찌 분별을 안하겠습니까?
고봉스님 : 약! 나가거라.
목산스님 : 어디로 나갈까요?
고봉스님 : (묵묵부답)

목산스님은 이때 고봉스님이 한마디 더 일러주지 않아 내내 아쉬움을 느꼈다고 회상한다. 목산스님은 젊은 시절 많은 선지식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풍도사

의 경봉스님, 관음사의 항곡스님, 월정사의 탄허스님, 범어사의 동산스님, 용화사의 전강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만나 탐마했다.

"선지식들이 남자를 제절할 때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요. 법담(法談)은 문자를 초월한 것이니까. 불교는 말마디 떨어지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전강석화도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남의 소리 하는 것은 죽는 법입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과도 같은 치열한 정진이었다. 특히 65년 스님이 재가자를 스승으로 모신 기이한 인연을 맺은, 근대 거사불교의 불꽃을 지킨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와의 만남은 그에게 화두 참구의 임계점에서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는 계기가 되었다.

"30년전 허공이 부서지는 걸 체험했어요. 천당과 지옥이 부서지고, 불보살이 다 부서졌어요. 생사 거래와 남녀노소, 일체의 차별이 다 무너졌지요. 눈, 귀, 코, 온몸 몸통이 다 허공이 되었어요. 내가 화엄경이 되고 법화경, 열반경,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이 되었습니까. 마음 자리하나 잡아 놓으면 팔만대장경이 날 떠날 수 없어요. 말쑥하게 된 청정법신(淸淨法身)의 자리에요. 기가 막힌거예요. 일체 행동이 여래선이요, 조사선인 자리입니다."

목산스님은 참다운 인생을 살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기 생활의 바탕이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죽고 사는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면 죽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서울 마포구 미려

조계사불교대학

신입생모집(2년과정)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배움의 문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열려있습니다

불교기본교육수강안내 (3개월 과정)
불교기본교육 강좌는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초심자를 대상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불교에 입문하였으나 궁극한 것이 많으신 분, 불교를 알고 싶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조계사의 스님들께서 올바른 수행생활을 지도해주시고, 불교에 대한 기본이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내용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수행의 실제
*교과과정 중 해인사 1박2일 수행대회가 있습니다.

모집분야
주간반 |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야간반 | 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5시

기타
개강일 : 2002년 3월 9일(토요일), 3월 12일(주간, 야간반)
수강료 : 30,000원(교재비 포함)
문의 및 접수 : 포교국 720-1390, 6742

교과목
1학년 1학기 - 불교개론·근본불교·불교문화·계율론
1학년 2학기 - 불교사·경전입문·정토불교
2학년 1학기 - 대승불교·경전강독·불교사회복지
2학년 2학기 - 선불교·포교와 상담

입학자격
불교기본교육을 이수하신 분
*타교육기관에서 이수하신 내용도 인정됩니다.
*개강 후 불교기본교육 35기 강좌를 함께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부문
주간반 :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9시
토요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본 대학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장
불교기본교육 수료증 사본(타 교육기관 이수자의 경우)

등록안내
등록금(학비) 36만원
*학생회비 10,000원 포함금액입니다.
가족(부모·형제·자매) 2인 이상 불교대학을 중시에 수강할 경우 한 분에 한하여 등록금 50% 할인
국가 유공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금 50% 할인

계좌번호
제일은행 100-10-013750 대한불교조계사
농협 053-01-238853 대한불교조계사
신한은행 324-05-019093 대한불교조계사

전형일정
원서 접수 : 1월 15일~
접수 장소 : 조계사 중무스 관공당
*서류심사 후 면접전형(서류심사 후 면접일) 개별통지

학사일정
입학식 : 3월 2일(토)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개강일 : 3월 4일(월) 오후 2시